

언론 사람

2018
vol.217

07

04

인터뷰

김외숙 법제처장

09

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노르웨이 아스트럽 피언리 미술관





북한 소녀 공연단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절,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을 기록할 기회를 가졌다. 평양 거리를 활보하는 남한 사람들이 신기했던지, 우리 일행은 북한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한 몸에 받았다.

우리의 눈에도 만나고 보는 모든 게 색달랐다. 같은 민족임에도, 너무 다른 정치체제와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달리 살아온 까닭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 끌었던 게 학생소년궁전의 아이들이다. 특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 북한 최대 규모의 공간이다. 주요 해외 손님들의 단골 코스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그들에겐 체제 선전을 하기에 이곳만큼 효과적인 곳은 없을 거다.

노래, 기악, 율동, 체조, 서예, 그림 등 전 분야에 걸친 각종 연습실이 700여 개나 되고, 지도교사가 600명이 넘는다니 가히 전 세계 최대 수준이다. 실제 북한의 예술과 스포츠 스타들은 이 곳 출신이 대다수다. 무용 활동실에서 만난 색동옷을 입은 소녀 무용단원을 만났다. 몸짓은 가히 압권이었다. 무용 기계처럼 움직이며, 가끔씩 깜짝 웃음을 지을 때마다, 방문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저런 몸짓들이 나오기까지 수백, 수천 번의 연습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사뭇 다른 느낌도 들었다. 

CONTENTS

2018 July
Vol.217



언론+



사람+

02 Close-Up
북한 소녀 공연단

04 인터뷰
김외숙 법제처장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따뜻한 아이디어
기부 접시 &
기부 자동요금정산기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팩트체크해보세요”

07 언론법 이모저모
인터뷰이(interviewee)의 권리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언론피해

09 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2018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화이트 불편러'의 등장

11 푸드텔링
북미 정상회담 연회
메뉴 해설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노르웨이 아스트립
피언리 미술관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7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적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法

차별 없는 사회, 알 권리 확대 등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7일, 제헌(制憲) 70주년을 맞아
25년간 인권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제처 김외숙 처장을 만나보았다.

진행 | 남승균 홍보팀장 사진 | 이병연 홍보팀 에디터

Q | 법제처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법제처는 행정부 내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처의 소관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심사하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법령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이라는 그릇을 빚는 도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예가가 그릇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듯이 법제처는 법에 정책이 잘 담겨있는지 심사합니다. 잘못 만든 그릇을 깨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법령, 현재의 언어생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찾아 바꾸는 일을 합니다. 또 도예가가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잘 보여주고 이해시키려 노력하듯, 법제처도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법제처에서는 법률용어 순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A |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로 다시 쓰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어법에 맞게 바꿔 쓰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의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3%가 법령이 여전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꼽았습니다. 법령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비롯한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오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어로 “생명”과 “땅”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 도심에 만들어지는 작은 숲과 같은 생태공간을 뜻하는 도시계획분야 전문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용어가 법에 불쑥 나오면 보통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생물서식공간(biotope)”이라고 쉽게 바꾸는 것이 우리 작업입니다.

Q | 차별법령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최근 국민들의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자칫 집단 간 대결과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를 반영해 건전한 공동체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평등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65개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외모상 흉터에 대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는 법령을 똑같이 보상하도록 하고, 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도 개선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Q |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 제정 70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헌 논의가 남북회담이나 선거 등의 이슈에 가려졌던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개헌 논의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정보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A | 지난 3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서는 알 권리를 직접 명시



김외숙
법제처장

- 법제처장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전)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하고, 개인정보 보호권이나 자기정보를 통제할 권리, 정보 독점의 폐해 예방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정보기본권의 중요성을 새 헌법에 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전제로 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Q | 최근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법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참고할 다른 국가의 사례가 있을까요?

A | 최근 법제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일본에서도 신산업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도에서 차이를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규제를 마련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함부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혁신을 위해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우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에 놀랐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Q | 법제처장으로 일하기 전까지 변호사로 오래 일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A | 법제처장으로 오기 전까지 25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된 1992년은 말은 사건에서 전부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 다음 해에는 반대로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 중 어느 대기업의 부당하고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사측의 압력과 회유로 2만 명에 달했던 노조원들이 순식간에 20여 명만 남게 되었고, 회사는 남은 노조원에 대해 징계 사유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원 한 분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는 제품들을 살피다가 하자가 있으면 벨을 눌러 멈추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측은 그가 줄다가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클레임이 걸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사진에는 누가 보더라도 조는 사람처럼 보이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사진을 찍은 작업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증인 신문 때 '카메라는 어디에 있었나?'고 물었고, 증인은 '한참 떨어진 사무실에서 가지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작업반장이 조는 작업자를 보면 깨우는 것이 상식일텐데, 굳이 카메라를 찾으려 간 것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설득해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Q | 작년 6월 12일에 취임하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법제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 법제처장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법제행정을 펼쳐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법제처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위해 먼저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고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법령을 소극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노력했던 법제처장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요?

❧ Q | 마지막으로 언론사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법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합당하게 만들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일을 법제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 법제관, 국민 참여 심사제와 같은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나 SNS에서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법제처가 하는 일 덕분에 삶이 보다 편안해졌다고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제처 마스코트인 '새령이'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는 김외숙 법제처장(유튜브 법제처)〉

“팩트체크해보세요”

네거티브 난무 속 선거 팩트체크 실종... 쏟아짐 현상 극심

김양순 | KBS 디지털뉴스팀장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세기의 정상회담 앞에서 6.13 지방선거는 흥행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투표율은 60.2%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많은 곳은 최대 8명을 2차례에 걸쳐 기표해야 했던 번거로움 속에서도 선거는 무난히 치러졌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주어진 선거 정보도 무난(無難)했을까? 최대 8칸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선택지에서 유권자들은 입후보한 인물과 정당, 정책에 대해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를 제공받았을까?

미국 대선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선거 팩트체크는 선거 보도의 꽃으로 여겨진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낙인인데, 전 쟁판인 선거에서 언론의 ‘거짓’ 판정은 상대 후보의 전술과 여론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인들은 TV 토론에서 “팩트체크 해보라”며 상대 후보를 도발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의 팩트체크는 찾기 힘들었다.

팩트체크가 실종된 6.13 지방선거

SNU팩트체크센터에 올라온 6.13 선거 관련 언론사 팩트체크는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플랫폼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휴사인 JTBC의 팩트체크 3건을 포함하면 모두 56건이다. 참여한 언론사는 KBS 등 방송사 5곳을 포함해 모두 18곳이다. 가장 많은 선거 팩트체크 기사를 낸 곳은 KBS가 10건,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가 각각 6건, 노컷뉴스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 선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팩트체크 기사가 279건 생성됐던 것에 비하면 지방선거에서 팩트체크는 그야말로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단위 동시 선거에 교육감 등 선출 공직자 수가 많았던 것까지 따지자면 안타까운 결과다.

정당, 지역 모두 팩트체크 쏟아짐 현상 극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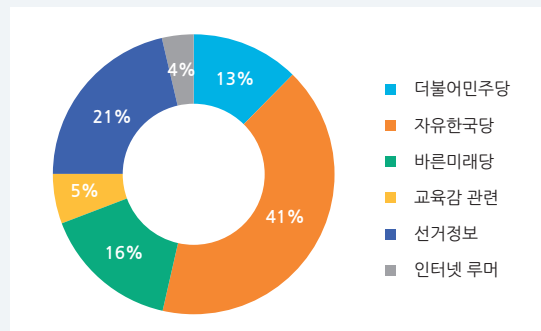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팩트체크가 이루어진 대상은 교육감 관련 보도가 3건, 인터넷 루머가 2건, 선거정보가 12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에 23건의 팩트체크가 이뤄져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이 9건, 더불어민주당이 7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팩트체크 23건 가운데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기사가 6건, 홍준표 대표에 대한 기사가 5건으로 두 명을 합친 검증 기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팩트 검증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8건,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가 1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곳은 KBS가 3건, JTBC 1건, 전복일보 3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각 2건,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와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친 야당에 대한 팩트체크가 32건으로 전체 팩트체크 기사 가운데 60%로 나타났다. 선거정보와 인터넷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외하고, 정당 팩트체크 기사만으로 보면 전체 39건 가운데 야당이 32건이다.



〈6.13 지방선거 팩트체크 보도 분포〉

정당에만 검증 기사의 쏟아짐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다. 지역별로도 쏟아짐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후보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는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후보에 대한 전복일보 기사 2건과 대전 동구청장 후보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 1건 등 3건에 불과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이름에, 언론이 이래도 유권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했다 할 수 있을까.

검증 기사는 적는데 쏟아짐 현상은 극심했던 이번 지방선거 언론사 팩트체크의 원인은 무엇일까. 팩트체크 기사의 영향력이 적어서는 아닐 거다. 연구 결과는 물론, 정치인들의 직접적 반응에서도 영향력은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가 어려운 네거티브가 유난히 판쳤던 상황, 그리고 19대 대선을 겪으며 나온 언론사들의 자기방어기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

인터뷰이(interviewee)의 권리

김주연 | 변호사

얼마 전 지방선거 당선자가 생방송으로 당선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를 중단해버린 일이 있었다. 당선자는 여배우와의 추문으로 선거기간 동안 고초를 겪었는데, 당선이 결정된 뒤 언론 사들에게 “당선 인터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만 하고, 여배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당선자가 인터뷰 도중 인이어를 빼버린 것이다. 당시 여론은 생방송 중 인이어를 빼버린 초유의 사태를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일을 보면서 다큐 영화 <자백>이 떠올랐다. 국가의 간첩 조작 실태를 낱알이 보여주는 영화 <자백>은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직시한다. 카메라는 국가의 어이없는 조작과 수사에 의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개인의 삶을 비춘 뒤, 관련 책임자들을 찾아 카메라를 들이댄다.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검정색 큰 우산으로 몸을 가리는 전 국정원장을 집요하게 쫓으며 질문하고, 공항 내 식당에서 부인과 밥을 먹고 있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견하고는 사전 동의 없이 바로 카메라를 비추며 인터뷰를 시도한다. 예정된 인터뷰가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부하는 모습은 무책임함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킨다.

예정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뷰어는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터뷰이에게 인터뷰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 주제나 내용을 조율한다. 인터뷰이가 가진 권리에 기해서, 당선

자는 언론사에게 특정 질문을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언론사도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먼저 약속을 깬 언론사에게 있고, 오히려 당선자는 약속 위반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인터뷰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인터뷰가 시작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주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조차 하나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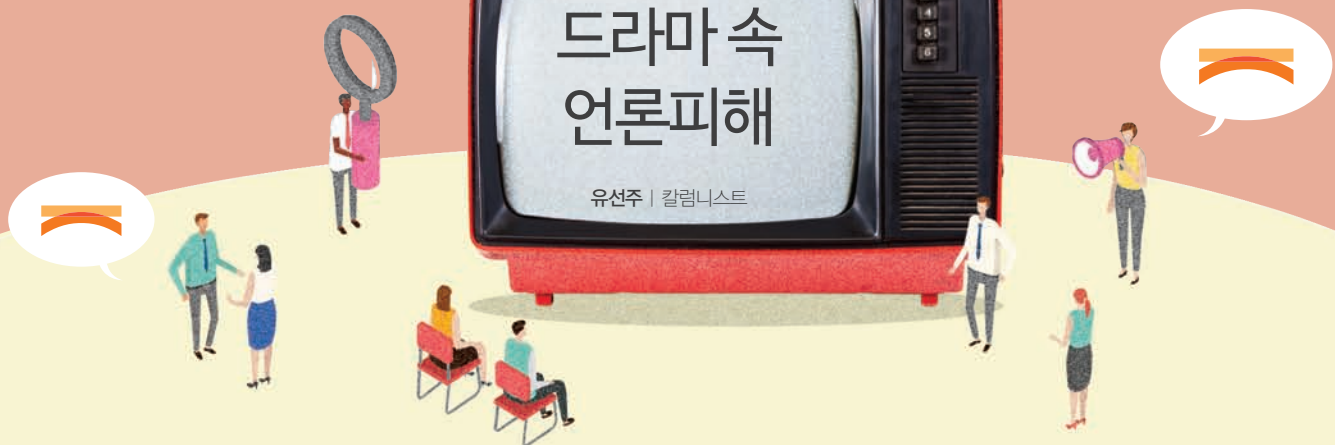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이가 가진 권리가 무한정 허용되지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의 알 권리를 비롯한 정당한 공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이의 인격권은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다. <자백>의 감독이자 언론인인 최승호는 영화를 지탱한 기습적인 인터뷰에 대하여 “원래 언론인은 그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테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한정해서 한 말일 것이다. 관련 책임자에게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인터뷰했다라면 영화 <자백>은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선자의 스캔들에 대한 질문은 어떤가. 공인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알 권리의 대상이고, 개인의

사생활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하면 사전 합의 를 어기고 인터뷰할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이었다면 검증을 위한 질문으로 필요했을지 모르나,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굳이 그 자리에서 인터뷰이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이의 권리와 인터뷰어로서의 언론사가 가진 자유는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만약 이익형량에 실패한다면, 결말은 인터뷰어의 무리한 인터뷰 강행으로 인한 인터뷰이의 인격권 침해, 혹은 인터뷰이의 뻔뻔한 인터뷰 거부로 인한 인터뷰이에 대한 비난 폭주 가능성,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터뷰어는 인터뷰가 허용되는 상황인지 잘 살펴야 하고, 인터뷰이는 공공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드라마는 복수극의 비중이 높습니다. 억울함에 대한 공감과 불안이 큰 사회이기 때문이겠죠. 드라마 속에서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는 전개를 살펴보면 작가가 한국사회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덩치 큰 고래들의 이권다툼이나 권력투쟁으로 희생양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생하는 과정에 부패한 언론이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반론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잘 돌아가고 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사적 복수를 실행하는 이야기가 지금처럼 인기를 끌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 혹은 유가족들이 모여 대안언론이라는 형태로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며 정의를 구현하는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서숙향 작가의 <허어로>(2009, MBC), 송지나 작가의 <힐러>(2014, KBS)는 보잘것없었던 3류 언론사 기자들의 성장담과 유력 언론사 기자들의 자기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송지나 작가의 <남자이야기>(2009, KBS)는 지난 2004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쓰레기 만두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출발합니다. 단무지 부산물로 만든 만두의 인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업체 명단이 공표되고, 언론이 '쓰레기 만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어느 만두 제조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인데요. 이를 재조명하며 언론피해를 일으킨 배후로 사이코패스 기업가라는 악인 캐릭터를 만들어 냈던 작가는

<남자 이야기>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언론의 문제를 <힐러>를 통해 확장해서 풀어نا갑니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언론인이 되거나 자력으로 언론피해를 회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악이 개입해야만 언론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좀 더 일상적인 언론피해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7년 제작한 5부작 웹 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고민에 빠진 대학생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은 후 '호스티스로 내몰리는 대학생- 청년들 꿈도 미래도 꿀 수 없는 사회'라는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사용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기자가 애초 취재원에게 밝힌 인터뷰와 촬영의 목적과 다른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이처럼 드라마 속에서 기자가 주목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옥씨남정기>(2016, JTBC)에서는 하청업체인 러블리 코스메틱이 자사 브랜드로 내놓은 신제품이 대기업에 의해 카피된 데 이어, 짝퉁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신들의 제품이 원조라는 대기업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에 대해 항의하자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가 해결하라고 하죠. <프로듀사>(2015, KBS)에서는 가수 신디(아이유 분)가 잠적하고

재벌과의 도피설 등의 루머가 돌자, 소속사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언론플레이에 나섭니다. 가수가 방송사 PD와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휴식 중이라고 추측할만한 뉴앙스의 보도자료를 내보낸 거죠. 이를 받아쓴 기사들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카더라 통신'이 양산되자 방송사 측에선 "정정보도 소송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리든가 해야"한다고 회의를 하지만, 기사의 교묘한 서술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별개의 사실을 엮어서 마치 사건의 원인처럼 보이게 하고 본질을 흐리는 선정적인 보도 방식은 언론인의 사명을 묻는 드라마 <피노키오>(2014, SBS)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같은 보도로 언론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방송사 수습 기자가 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보도의 피해자를 구하기도 했죠.

드라마 속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등장하거나 언급된다고 해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손쉽게 구제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갈등이 풀리면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언론피해를 다루는 드라마 속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급되는 일은 중요합니다. 현실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이니까요. 드라마가 풀리지 않은 원한이나 갈등을 이야기의 추동력으로 삼는 만큼, 억울함이 발생하고 풀어지는 절차도 세심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정범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4년 동안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치열한 경쟁 속에 끝났다. 항상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빗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선거 관련 기사의 경우 정당과 후보들 사이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공공연히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선거가 혼탁해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선거 4개월 전부터 선거 후 1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월 12일 선심위가 출범하여 7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심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간 느꼈던 소회를 몇 자 정리해 본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회의부터 14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 심의안건이 100건을 넘었고, 시정요구 건이 10건, 재심 요구 건이 5건에 이르는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선거기사가 조금이라도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위반한 경우 자체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고, 후보자로부터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서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도 한다.

심의를 하고 난 다음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칫 언론활동을 위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역할, 국민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기능을 가법게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위반 사례도 다양하다.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기간 내에는 후보자가 언론에 칼럼을 기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나치게 부각하기 위하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사진을 올리는 경우,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어려운 것은 후보자의 잘못을 보도하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일 때다.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후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충돌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까닭에 게재의 위치, 기사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매년 선거 때마다 선심위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언론의 태도는 크게 나이지 않는다. 지역 언론사의 열악한 상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언론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언론은 공기관이라는 생각과 그 지면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 공간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선거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선거기사가 객관성을 확보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함께 선심위 활동을 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시간에 쫓기면서도 회의에 참석해 진지한 논의를 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한다. 날마다 쏟아지는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안건으로 정리해 올린 선심위 직원들의 노고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다. 간박하게 이루어지는 선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민주주의의 꽃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2018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화이트 불편러'의 등장

박진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난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995년 첫 동시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60.2%를 기록했다. 예전에 비해 선거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투표 참여의지가 비교적 낮았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난해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달라는 굼직굼직한 청원들이 설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의롭고 살만한 사회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요즘 세대들을 '화이트 불편러'라는 키워드로 좀 더 살펴보자.

번호	분류	제목
답변대기	외교/통일/국방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답변대기	기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답변대기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답변대기	인권/성평등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확실히 '정의로움'에 대해 예민한 세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학창 시절에 부적절한 과거가 밝혀진 고등학생 래퍼는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하였음에도 방송 차차 요구에 따라 수밖에 없다. '치렐루아'를 외치며 명실상부 최애 간식으로 존중하는 치킨일지라도, 가격 인상이나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불매하는 20대의 비율이 44.3%를 차지한다(2017년 7월,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결과 참조). 또한, 최근 출시된 관찮은 제품의 후기를 온라인에서 공유할 때, 논란이 되었던 특정 기업명을 게시글 제목 앞에 말머리로 달아 구매 시 주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불편한 기업을 주의하라는 말머리를 단 온라인 커뮤니티 내 제품 리뷰 예시〉

지난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예전에 비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20대의 비중은 79.6%,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비중도 89.8%나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안전과 생존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에 매우 아파하고 실망했으며, 국가 리더십을 교체하는 경험까지 한 20대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여겨왔던 관습, 관념들에 대해서도 다시한 번 따져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기업들의 갑질, 젠더 이슈, 폭력,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소식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보다 노력을 덜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부조리한 장면들은 더 이상 밀레니얼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청년 세대가 불의와 타협하며 쉽게 살려고 했던 많은 국가에서는 반드시 경제적 위기와 사회 갈등이 찾아왔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부당함과 불편함에 대해 그들에게 가장 편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자신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청년들의 자유분방하고 패기로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

북미 정상회담 연회 메뉴 해설

이용재 | 음식평론가

지난 6월 12일, 초유의 관심을 모은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음식의 상징성을 정치에 활용하는 역사가 깊다는 걸 감안하면, 만찬과 메뉴가 궁금해진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지원 요청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영국 왕 조지 6세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 하이파크에서 피크닉을 열고 핫도그를 대접했다. 미국의 서민 음식을 대접해 참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운다는 의도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등이 열리면 메뉴로 비빔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데 아우르는 상징성을 지닌 음식으로 전쟁 혹은 갈등 해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서 가져온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깜짝 메뉴'로 북한의 전향적인 의지를 표명하는데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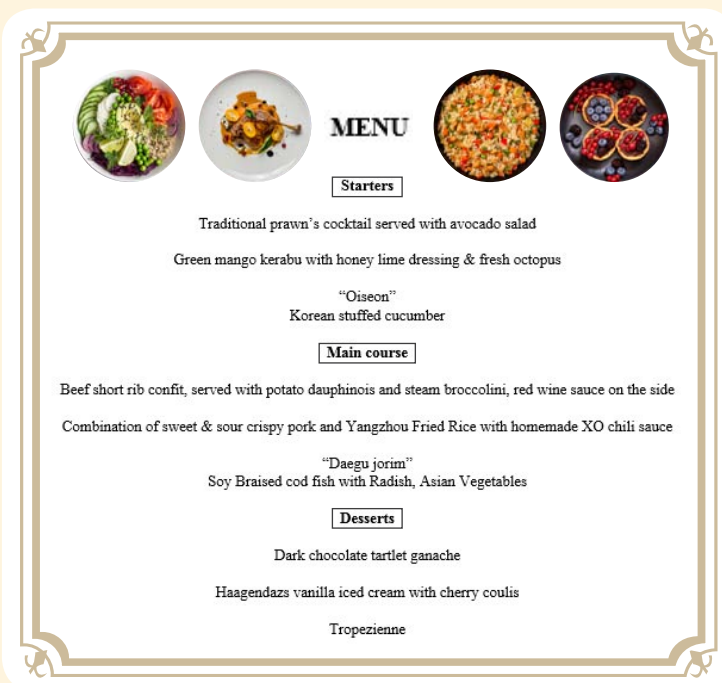
6·12 북미 정상회담의 만찬은 크게 전채와 주 요리, 후식은 3코스로 이루어졌고 각각 세 가지 요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미국식과 한국식,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가미된 동남아시아식을 각 코스별로 한 가지씩 안배한 구성이다. 식사의 시작에서 가볍게 입맛을 돋워주는 전채를 살펴보자. 전통적인 새우 카테일과 아보카도 샐러드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듯 영국에서 기원해 미국에 뿌리를 내린 양식의 대표 전채 가운데 하나이다. 데쳐 차갑게 식힌 새우와 케첩, 홀스래디시 등으로 만든 특유의 카테일소스를 함께 낸다. '카테일'이라는 이름에 충실하기 위해 유리잔의 가정자리에 새우를 걸쳐 내기도 한다. 한편 꿀 라임 드레싱의 그린 망고 케라부와 싱싱한 문어는 이름이 말해주듯, 말레이시아식 샐러드인 케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맛이 강한 설악은 망고를 라임즙과 액젓 등으로 버무려 감칠맛이 폭발하는 한편 고수나 박하, 레몬그라스 같은 허브의 생생한 향도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식인 오이선은 어수하게 썬 오이에 칼집을 넣어 쇠고기, 표고버섯, 황백 지단 등을 끼운 뒤 새콤한 초물을 끼얹어 만드는 요리이다.

주요리 셋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조림이다.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대구 간장 조림이 있고, 갈비 요리 또한 콩피(confit)로 조림에 속한다. 콩피란

재료를 끓는점보다 낮게 데운 기름에 오래 문근하게 익히는 프랑스의 요리법이다. 재료를 지방에 담그다보니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 식품의 장기 보존법으로 고안되었다. 다만 기름은 물보다 열에너지의 전달이 완만하므로 재료를 천천히 익힐 수 있어 육류 가운데서도 오래 익혀야 부드러운 고기 혹은 부위의 조리법에 많이 쓰인다. 한식에서 갈비는 구이용 부위이다. 그러나 갈비는 뼈 사이의 살이니 운동을 많이 해 질긴 편이어서 조림에 잘 어울린다. 오리 다릿살이 콩피로 익히는 대표적인 식재료인데, 식용

유 등을 쓰기도 하지만 지방이 많은 부위라면 자체의 기름을 녹여 그대로 익히기도 한다.

세 번째 주요요리는 揚州炒飯(扬州炒饭, 양저우 차오판)으로, 중국 장쑤성의 양저우 지방 이름을 달고 있지만 광둥 지방이 고향인 볶음밥이다. 광둥 지방 출신이 화교로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나갔으니 중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스를 발라 바삭하게 구운 돼지고기 찌뽕우와 새우를 함께 볶는 게 양저우 차오판의 특징이다. 한편 XO 소스는 말린 패주, 새우 등을 조려 만든 해산물 바탕 소스로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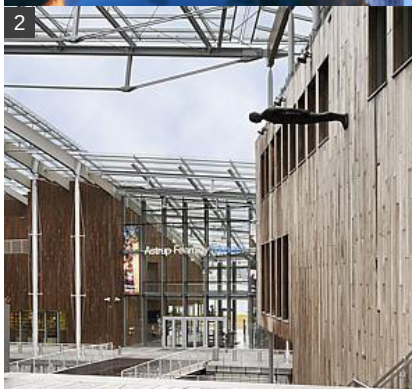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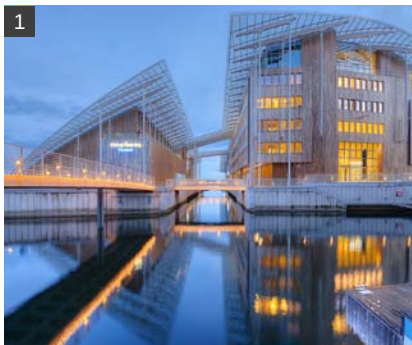


대에 홍콩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통한다. XO라는 이름은 'Extra Old'라는, 고급 코냑에 붙는 접두사에서 왔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살펴보자. 세 가지 모두 서양식이다. 첫 번째는 버터와 밀가루의 바삭한 껍데기에 다크 초콜릿을 부어 구운 타르트이다. 이를 개인용으로 작게 구우면 '타르틀렛(tartlet)'이라 부른다. 두 번째 디저트에서 '쿨리(Coulis)'는 걸쭉하게 끓인 과일 소스를 의미하는데, '체리 소스를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보된다. 마지막인 트로페지엔느(Tropezienne)는 프랑스의 생트로페즈 지방에서 유래한 파이로, 버터와 계란을 풍부하게 넣어 만든 브리오유 같은 빵을 반 갈라 커스터드 크림을 발라 만든다. '맘모스빵'과 조금 비슷하다.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가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를 촬영할 당시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오슬로의 아름다운 피오르 바닷가에 거대한 목선(木船)처럼 자리잡은 뮤지엄

이영란 | 미술 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1 오슬로 해변에 위치한 아스트럽 피언리 미술관

2 마치 선박에 있는 것같은 미술관 테라스.

안토니 고품리의 인간조각이 벽에 매달려 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열대야를 쫓기 위해 북유럽을 떠올려봅니다. 대자연의 선물인 오로라와 피오르(피오르드)를 상상하면서요. 그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송네피오르(Sogne Fjord)는 최고 절경이 라지요? 피오르가 무려 204km에 달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매년 오른다는군요. 수심이 1,300m인 곳도 있다니 대단합니다.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피오르'는 '침식 현상'을 가리키는 노르웨이 말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절벽 사이를 깊숙이 파고들며, U자 모양의 골짜기를 만든 게 '피오르'지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베르겐(Bergen)의 송네피오르 외에도 사실 노르웨이에는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신(神)이 천혜의 절경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근사한 건축과 예술로 그에 화답하는 곳이지요. 베르겐에서 '4대 피오르'를 원 없이 음미했다면 기차로 7시간 거리의 오슬로(Oslo)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오슬로는 11세기 바이킹의 하랄드 왕이 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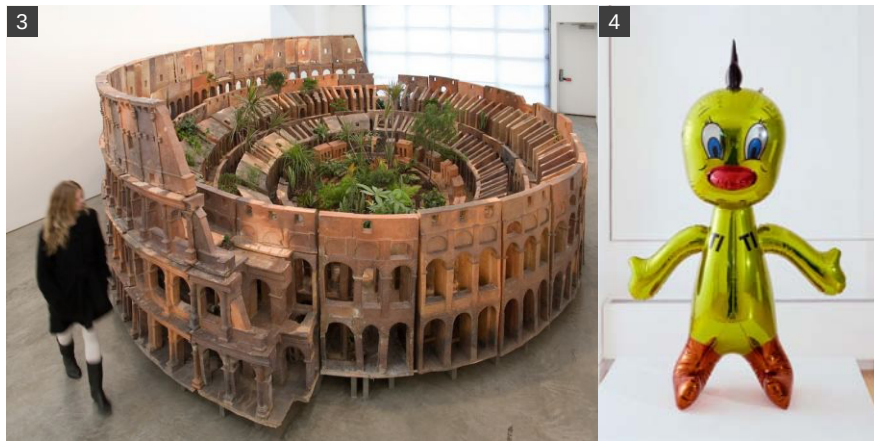
도시로, 13세기부터 수도로 번영을 구가해왔습니다. 이 유서 깊은 도시는 면적은 무척 넓지만 인구는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청정도시의 요건을 갖춘 셈이죠. 오슬로에는 노르웨이 왕궁이 있고, 의회와 오페라하우스, 노벨 평화재단이 있습니다. 노벨상 중 다른 상(賞)은 스웨덴 학술원과 한림원 등 스웨덴 측이 수여하지만 평화상만은 노르웨이 의회가 주관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살았을 당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는군요.

오슬로에는 노르웨이가 배출한 천재화가 에드바르트 뭉크(1863~1944)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뭉크의 대표작 '절규'는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지만 뭉크의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음미하려면 시(市) 동쪽의 뭉크미술관을 찾아야 합니다. 1,100점에 달하는 작가의 전(全) 시기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어둡고 침울한 대표작과 차분한 초기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뭉크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어머니와 누이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정신병에 걸린 아

버지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했기에 작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대부분의 작품이 고국에 온전히 남아 전세계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몽크미술관을 둘러본 뒤 오슬로의 가장 화려한 해변거리(아케르 브뤼게)를 지나면 '아스트럽 피언리 현대미술관'(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미술관은 1993년 노르웨이의 해운왕(王) 가문인 피언리(피어리)를 만든 토마스 피언리는 낭만파 화가의 아들이었고, 그의 손자들이 오슬로 도심에 미술관을 조성한 거지요. 이후 미술관을 현재의 튜브홀맨 해변으로 옮긴 사람은 가문의 외손자이자 출중한 사업가인 한스 라스무스 아스트럽(1939~)입니다. 1972년 피언리 해운을 인수한 그는 피언리를 막강 경쟁력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해양 굴착업과 금융 부문에도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었고요. 억만장자인 아스트럽 회장은 현대미술에 특별히 애정이 많아 20년간 1,500점에 달하는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독신에, 자식도 없다 보니 예술에 깊이 빠져든 거지요. 그는 도심의 협소한 미술관으로는 거대한 규모의 현대미술품을 담을 수 없다고 보고, 2012년 오슬로 부둣가에 전시면적 4,200평방미터(1,265평)의 첨단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거대한 선박 형상의 새 미술관은 세계적 건축가 렌조 피아노(1937~)의 '작품'입니다.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칼레도니아의 치바우문화센터, 오사카의 간사이공항을 설계한 그는 도시 환경과 건축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데요, 오슬로 해변의 미술관 또한 유리과 목재를 적절히 써서 바다와 잘 융화되도록 했습니다. 해안가 너른 부지에 시원스럽게 건립된 렌조 피아노의 '명품 건축'을 실견하는 것만으로도 '오슬로에 오길 잘 했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찰랑이는 파도 위에 배처럼 떠있는 미술관과 그곳에서 호젓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없이 여유롭기 때문이지요.



3 중국의 유명작가 황용핑의 거대한 입체작품 콜로세움. 미술관 소장품이다.

4 제프 쿤스 작 <TiTi> 전시장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피언리 미술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뉘져 있는데 건물 사이로 바닷물이 유유히 흐릅니다. 전시실 밖으로 선박 갑판 같은 테라스가 있고, 작은 다리를 건너면 다른 건물로 연결됩니다. 미술관 남쪽 해변에는 10여 점의 조각들이 푸른 잔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의 돌조각 '노동자', 아니쉬 카푸어의 추상조각은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조각공원 옆에는 눈부신 요트들과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고, 세련된 카페와 샵들이 이어져 있지요.

설립자의 취향에 따라 피언리 미술관은 철저히 '현대미술'을 지향합니다. 노르웨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동시대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연구합니다. 따라서 난해하고 도발적인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작업을 왜 하는 거죠?"라고 묻고 싶은 작품도 있고, 머리만 아프게 하는 개념미술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이 낳은 악동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업이 그렇습니다. 죽은 양을 반으로 갈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넣은 작업이라든가 인간 두개골을 캐스팅한 조각을 볼 수 있지요. 무척 끔찍한데 작가는 '생명의 유한함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호랑나비를 끝없이 덧붙여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장엄한 평면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얀 캔버스에 색색의 둥근 점을 찍으며 세련된 회화도 만듭니다. 세계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스타작가의 드넓은 행보를 확인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영국 작가인 프랜시스 베이컨,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도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대미술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보유 중입니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리처드 프린스, 매튜 바니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즐비합니다. 특히 제프 쿤스의 초창기 '19금' 사진부터 최신 조각까지 12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요. 또 독일을 대표하는 안젤름 키퍼, 이란의 시린 네샤트, 중국의 리우 웨이,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아, 한국 작가 구정아의 설치작품도 있군요.

이렇듯 피언리 미술관은 전 세계의 현대미술을 두루 보유하고 있고, 과감한 기획전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북유럽 현대미술관 중 가장 수준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시 오슬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문화예술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것은 재단의 막강한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GDP 8만 2710달러(세계 5위)의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노르웨이의 일등 기업이 든든히 미술관을 받쳐주고 있으니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거죠. 청정국가의 참신한 예술 도전, 참 부럽습니다. 

위원동정

◆ 국제 컨퍼런스 참석



위원회는 6월 20일(수) ~ 23일(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8 CUC-NCA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거버넌스(Communication, Media, and Governance in the Age of Globalization)>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김형훈 중재부장(서울제5중재부), 한은경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김영일 중재위원(충북중재부), 권오근 사무총장, 기획팀 구율화 팀장, 심의1팀 한혜연 대리가 참석했다.

한편 6월 24일(일)~28일(목) 싱가포르에서 <오늘날 뉴스란 무엇인가? (What Is News Now?)>를 주제로 개최된 2018 동서문화센터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2018 East-West Center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에는 류준렬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기준 중재위원(서울제5중재부), 김성기 중재위원(강원중재부), 정희성 윤영본부장, 홍보팀 최은진 차장이 참석했다.

◆ 양인석 위원장, 경인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

양인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경인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경인지역 언론현황 및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황용석 위원, 방통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위촉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교수)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직무를 수행한다.

◆ 주정민 위원, '광주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 임명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5일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가 구성한 '광주혁신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광주혁신위원회는 17일 간단한 출범행사와 첫 공개 전체회의를 가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 뉴스

◆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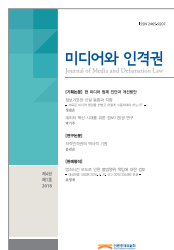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147호)가 6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섹션에는 '미투 이후 남겨진 언론 보도와 인격권 문제'라는 대주제로 성기준위원의 「시정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본 미투 보도 실태」 등의 기고글이 수록되어 있다.

◆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6월 30일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 183건에 대한 통계분석과 주요 사례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발간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가 6월 30일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는 현 미디어 법적 진단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공모한 기획논문 2편이 수록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을 주제로 공모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도 수록되어 있다.

◆ 외국언론인 연수



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6층 위원회 강의실에서 중국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중국 내 10개 기관에서 추천받은 언론계 인사 22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강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따뜻한 아이디어



Donate a plate for Japan & Operation hunger

기부 접시 & 기부 자동요금정산기

기발한 생각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는 학교에 다니기는커녕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 받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후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적극적인 실천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발한 캠페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0의 초대형 자연 재해였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마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일본을 돕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그중 호주의 '일본

먼저 소개할 캠페인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을 위해 접시를 기부해주세요(Donate a plate for Japan)' 캠페인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캠페인의 무대는 회전초밥집입니다. 컨베이어 위에서 돌고 있는 초밥들 사이에 놓인 몇몇 빈 접시에는 '일본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메시지가 놓여 있는데요.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접시를 다른 접시들과 함께 쌓아뒀다가 나갈 때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칸느 광고제에서 옥외광고 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 음식인 '초밥'을 이용해 일본이라는 연관성과 기부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캠페인은 자동요금정산기의 지폐 투입구에 아이들의 입을 대비시킨 "Operation Hunger"의 광고물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듯, 사람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을 후원하는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많은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처럼 고객에게 눈에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좀 더 세심한 접근방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부나 성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앞으로 비영리 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사회 공헌활동 캠페인을 기획할 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훨씬 높은 호응과 결과를 얻어 내길 희망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발간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기획논문]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정필운

데이터 혁신 시대를 위한 정보기본권 연구
박기주

[연구논문]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법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류영재

제4권
제1호
2018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2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